

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5
IV. 국제신인도	6
V. 종합 의견	8

I. 일반개황

면적	1,139천 km ²	GDP	2,856억 달러 (2015년)
인구	48.2백만 명 (2015년)	1인당 GDP	5,923 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Peso (Ps)
대외정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2,742페소 (2015년)

- 중남미 인구 3위, GDP 4위의 콜롬비아는 석탄, 원유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임.
- 반세기 동안 이어진 반군세력 활동과 마약, 납치, 살인 등 강력범죄가 만연하여 심각한 치안불안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, 최근 정부·반군단체간 평화협상 타결로 향후 치안개선이 기대됨.
- 콜롬비아는 멕시코, 칠레, 페루와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나, 인접국인 베네수엘라와는 밀입국 문제로 인한 국경 일부 폐쇄 문제 등 갈등요소가 상존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제성장률	4.0	4.9	4.6	2.5	2.8
재정수지 / GDP	0.1	-0.9	-1.8	-3.1	-3.0
소비자물가상승률	3.2	2.0	2.9	4.4	3.5

자료: IMF

□ 국제유가 하락 및 중국경제 둔화로 경제성장률 하락

- 유가상승에 힘입은 수출호조, 높은 투자율(2014년 기준 25.0%) 등에 힘입어 2010~14년간 연평균 4.8%의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2.5%까지 둔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

-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(Inflation Targeting) 하에 관리목표 물가수준을 3%±1%로 설정하고 있으며, 2010~14년간 관리목표 범위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함.
- 2015년에는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,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.4%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, 2016년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원유관련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소폭 확대

- 2011년 콜롬비아 정부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수립하였고, 이에 따라 2012~13년에는 균형에 근접한 재정수지를 달성하였음.

- 2015년에는 저유가 기조에 따른 원유관련 재정수입 감소*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.1%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재정수지도 유가 추이에 따라 가변적이거나, GDP 대비 3%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* 중앙정부 수입 중 원유관련 수입(GDP 대비): ('13년) 3.3% → ('15년) 1.5%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열악한 교통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

-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 경제성장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함. 특히, 도로는 자국 화물운송의 70%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, 도로 포장률이 낮음.
- 2015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(WEF) '경쟁력보고서'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철도(106위), 도로(126위) 등 교통인프라 부문 경쟁력 측면에서 하위권을 차지함.

□ 특정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로 외부충격에 취약

- 총수출액 중 원유, 석탄, 커피 등 1차 상품에 대한 비중이 60%를 초과하고, 이 중 원유에 대한 수출비중이 40%를 넘는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* 국제 가격 변동 및 기후변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함.

* 2015.11월 기준 수출비중: 원유(40.5%), 석탄(12.7%), 커피(7%)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

- 콜롬비아는 24억 배럴의 석유 확인매장량(중남미 5위, 2014년 기준)을 보유하고 있으며, 생산량은 하루 평균 99만배럴 수준(중남미 4위, 2014년 기준)임.
- 또한, 석탄(67억 톤, 중남미 1위), 니켈(1.1백만 톤, 중남미 3위), 금, 구리, 철 광석, 보크사이트, 에메랄드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

- 우리베(Uribe) 정권(2002~10년) 이후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무역협정,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음.
- 세계은행의 '2016년 Doing Business 보고서'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9개국 중 콜롬비아는 멕시코(38위), 칠레(48위), 페루(50위)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4위, 전체국가 중 54위를 기록함.
 - 특히, 자금조달(2위), 소액 투자자 보호(14위), 사업청산(30위)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함.

3. 대외거래

□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

- 2010~13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,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해옴.
- 2014년 이후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, 201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*한 것으로 추정됨.

* 경상수지 추이(억 달러): ('11년) 97 → ('13년) △124 → ('15년) △182

□ 외환보유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

-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,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000~14년간 증가하였으며, 2015년에는 전년 수준인 462억 달러(월평균수입액의 6.9개월)를 기록함.
- 또한, IMF와의 신축성 신용공여 계약(Flexible Credit Line, 54.5억 달러) 체결을 통해 단기유동성 위기 대처 방안을 마련함.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 상 수 지	-11,305	-12,367	-19,568	-18,161	-15,152
경 상 수 지 / G D P	-3.1	-3.3	-5.2	-6.3	-6.0
상 품 수 지	4,956	3,180	-4,598	-11,545	-9,134
수 출	61,604	60,281	57,012	40,330	39,660
수 입	56,649	57,100	61,610	51,875	48,793
외 환 보 유 액	36,444	42,758	46,408	46,206	..
총 외 채 잔 액	81,782	97,748	113,534	105,974	108,599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2.1	25.7	30.0	32.2	30.4
D S R	15.4	12.5	22.3	30.6	24.5

자료: EIU, OECD(CRAM)

□ GDP 대비 외채비중이 낮고, 외채구조도 양호
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외채규모는 32.2%로 낮은 수준이며, 총외채 중 단기 외채 비중도 12.5%로 외채구조가 양호한편에 속하며,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총외채잔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상·하원 내 다수석을 기반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수행

- 2010년부터 집권한 중도우파 성향의 마누엘 산토스(Manuel Santos) 대통령이 2014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며, 상·하원 내 연정(국가연합사회당, 자유당, 급진 변화당)을 통해 양원 다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음.
- 2015년 10월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여당연합이 총 32개주 중 28개주에서 승리함에 따라 2018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반군단체와의 평화협상 타결로 치안개선 전망

- 치안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군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한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 9월 최대 반군단체인 좌익무장혁명군(FARC)과 평화협상을 타결함.
- 협상체결을 위한 시한은 2016년 3월이나 무장해제, 평화협정 문건 비준 절차 등의 안건이 남아 있어 최종 협상체결 연기 가능성은 존재함.
- 반군단체와 대치상황이 해소되는 경우 콜롬비아 치안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3. 국제관계

□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, 일부 갈등발생 요소도 존재

- 콜롬비아는 2012년 7월 결성된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을 바탕으로 페루, 칠레, 멕시코와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, EU, 캐나다,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.
- 한편, 인접국인 니카라과와는 카리브해 연안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, 베네수엘라의 경우 밀입국 및 국경보안 문제를 이유로 2015년 8월에 콜롬비아 국적의 1,500명을 추방하는 등 양국간 관계가 악화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

- 1980년대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콜롬비아는 해당 경험이 없으며, 외채규모, 외채상환태도 등이 양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.
- 또한, 2015년 9월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67.9억 달러(단기 13.6억 달러, 중장기 54.4억 달러) 중 연체액은 19.9백만 달러에 불과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당행	C1 (2016.2)	C1 (2014.3)
OECD	4등급 (2015.10)	4등급 (2014.10)
Moody's	Baa2 (2014.7)	Baa3 (2013.7)
Fitch	BBB (2015.12)	BBB (2015.5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62년 3월 10일(북한과는 1988. 10. 24)

□ 주요협정: 문화협정(1976), 사증면제협정(1981), 과학기술협정(1992), 무역협정(1986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10), 이중과세방지협약(2014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9월말 기준 50건, 5.8억 달러(신고기준)

□ 교역규모

<표 4> 한·콜롬비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대 콜롬비아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출	1,342	1,509	1,129	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
수입	207	608	322	기호식품, 원유, 합금철선 철 및 고철
교역규모	1,549	2,117	1,451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유가상승에 힘입은 수출호조, 높은 투자율 등에 힘입어 2010~14년간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,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경제 둔화로 2015년 이후 2%대의 둔화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관리목표(2~4%)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, 2016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0년에 집권한 산토스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, 상·하원 내 집권연정을 바탕으로 양원 다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음.
-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이 높지 않고 견실한 외채구조(단기외채 비중 12.5%)를 가지고 있으며, ECA 자금에 연체율도 낮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임.

조사역 조현수 (☎02-6255-5712)

E-mail: hsc@koreaexim.go.kr